

어린이 책꽂이

▲처음읽는 이야기 의학사(제1권) =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의학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사시대와 고대 이집트의 의술',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의학', '중세시대의 의학'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세울·9천원)

▲탈몽치 = '진전군과 두방부'로 2006년 제2회 마해송 문학상을 수상한 동화작가 김양미씨의 두번째 단편 동화집. 가족간의 관계, 친구사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낸 4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계적·8천500원>



▲쉽고도 어려운 대화 =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대화는 의견을 달리하되 상대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알아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웅진주니어·7천500원)

▲펜도롱씨의 세계여행 = 여행을 좋아하는 괴짜 아저씨 펜도롱이 세계 6대륙을 여행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진정한 여행의 의미, 세계 각국의 숨은 정보까지 알려준다.



(주니어 김영사·9천500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 별, 쥐, 청어 등 동물들의 장례식을 통해 삶과 죽음을 경쾌하게 돌아보는 그림책. 죽은 동물들에게 하나 하나 이들을



을 보여주는 의식에서 어린이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는다.

(시공주니어·8천원)

술꾼의 거짓말에 숨겨진 심리학 법칙

무삭제 심리학 이남석 지음

한국인들은 중국 귀신 강사와 국내 처녀 귀신 중 누굴 더 무서워할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피와 잔인한 요소가 범백인 외국 영화 속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포를 느끼면 자극 횟수가 많아지는 '피부 전기반응'이 한국 영화 속 귀신을 볼 때 더욱 높아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평소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가졌던 자기 문화권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에 더

많은 공포를 느낀다. 또 국내에서 죽은 귀신이 많은데도 무당들이 외국인 귀신을 불러드릴 수 없는 것도 평소 기억하고 있는 것에 의존해 곳을 하는 무당들의 심리 때문이다. 인지심리학자 이남석씨의 '무삭제 심리학'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왜 술꾼은 매번 후회를 하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는지 등 일상의 모든 장면이 심리학의 법칙이 숨어 있음을 일러준다.

저자는 '거짓말'이 마음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허풍을 떠는 남자, 자기 집에 귀한 물건이 있다고 자랑하는 아이,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을 받았다고 떠벌리는 대학생들.

이들의 심리에는 거짓말을 통해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욱 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주변을 냉소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행복해지려는 자기 기만이 무수한 거짓말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미켈란젤로가 수많은 위작을 만들어 내며 거짓 속에서 부와 명성을 얻은 이야기 등도 흥미롭게 전개된다.

이밖에도 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달라 싸우는지, 성공의 비결이러던 '아침형 인간' 중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고스트가 정말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등 일상의 모든 장면에 숨어 있는 심리학 법칙을 소개한다.

답답하지만 했던 일상의 문제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또 일상 생활에서 심리학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special tip'도 곁들였다. 실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거짓말을 가려내는 기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 등이 담겨있다.

(예담·1만2천원)

/오공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나는 당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공부에 대한 기대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학교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것같은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왜 공부는 해야 하는지, 왜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해야 되는지 그 답을 몰랐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들렀다. 의미 없이 서가를 훑어 내리던 끝에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란 책을 빼어들었다. 그때도 꽤나 지망도가 높은 책이었다.

거기엔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더 높이 날기를 원하고 더 빠르게 날기를 소망하는 '조나단'이란 갈매기가 있었다. 그는 다른 갈매기 같이 먹이를 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바위에 추락하여 온 몸이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조나단은 새롭고 다양한 곡에 비행술을 연습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빵조각이나 물고기 대가리가 아니라, 그는 기술과 자유였다.

나는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었다. '뭐 이런 갈매기가 다 있어'라는 마음이었다.

자유를 추구하는 그의 행위는 갈매기 종족들의 전통과 권위에

삶을 삶답게 하는 꿈과 이상들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조나단은 종족들에게서 추방당하고 만다.

자신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족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혼자서 외로이 비행술 훈련에 여념이 없던 조나단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두 마리의 갈매기의 인도를 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거기엔 조나단처럼 자유를 향해 비상하던 많은 갈매기 무리가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뚫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 이렇게 자유와 이상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들만이 누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을지 모른다...

거기서 설리번 선생님과 치양 선생님은 특출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조나단은 점점 원숙해지고 시공을 뛰어넘는 자유로까지 도약을 하게 되었다. 육체를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며 마음을 조종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조나단은 자기를 추방하였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 바닷가로 돌아온다. 자신처럼 자유를 향해 비상하는 갈매기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아니나 다를까 플래처를 비롯한 여섯 마리의 갈매기를 만나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 비상을 지도하며, 이들을 추방했던 종족들에게 돌아갈 아릅답고 우아한 비상을 통해 많은 갈매기들의 마음에 차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조나단은 온빛 날개를 빛내며 허공으로 사라지고 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플래처에게 비상을 배우기 위해 모여드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나는 마지막에서 전율을 느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눈앞만 바라보며 의미 없이 반복하는 대부분의 인간 무리 속에서 저 높은 하늘을 꿈꾸며 날아오르는 비상과 이상만이 삶을 삶답게 할 것이라는 가슴앓이었다.

나는 그 무로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해왔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 일상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작으나마 삶이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노력하는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배웅(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장)



현대인들의 '진정한 성공의 길' 제시

성공 스펙터 존슨 지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로 한국에 자기계발서 붐을 일으켰던 스펙터 존슨이 신작 '성공'을 펴냈다.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우와 '행복', '멘토'와 함께 '인생의 지혜' 3부작으로 끝내는 '성공'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대니'라는 주인공의 성장 여행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세일즈맨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대니는 우연히 전설적인 세일즈맨 프랭크를 만나면서 성공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프랭크는 자신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커다란 성공을 일궈낸 7명의 멘토를 대니에게 소개, 대니가 더 큰 배움을 얻도록 배려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성공 비결은 긍정적으로 상상하라, 마음의 소리를 경청하라,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라, 일과 나 자신 모두를 즐겨라 등이다.



(21세기 북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1년생이 겪는 청춘시절의 경험담 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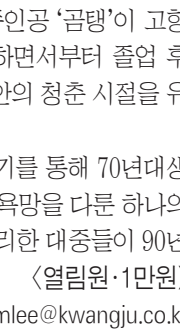
첫 경험 김중광 지음

등단 10년째를 맞은 소설가 김중광씨가 세번째 장편소설 '첫 경험'을 썼다.

저자는 장편 '71년생 다인아'(2002), '야살장이록'(2004) 등 여러 작품을 통해 자기 세대의 체험을 소재로 구성된 이야기를 풀어낸 바 있다. 이번 소설도 마찬가지다.

'첫 경험'은 작가의 분신과도 같은 71년생, 90학번 주인공 '곰뽕'이 고향을 떠나 경기도 청춘군의 청춘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하면서부터 졸업 후 서울에 일자리를 얻어 청춘군을 떠나기까지의 7년 동안의 청춘 시절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어느 농촌 소도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70년대생의 삶을 들여다 보는 보고서이며, 작가를 꿈꾸는 자의 욕망을 다룬 하나의 습작이다"면서 "학교와 경향서를 중심으로 여러 부조리한 대중들이 90년대를 통과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열린문·1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89
한 010-8004-6669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1,300평) 평당70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7)972-4385
(07)972-4385
★급매★
●첨단 인근 비아름 일반주거 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식상점사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취권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국민공인중개사
한 011-635-7939, 010-3114-6103
(두일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물
●28㎡ 상업지역 빌딩
●28㎡ 상업지역 빌딩
●41㎡ 상업지역 빌딩